

일본어교육과 일본학연구의 관계

— 중국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연구 —

쉬이핑*

1. 배경

중국에서는 근대 이후부터 일본어교육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한동안 정체기를 겪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1950년대부터 신중국(新中国)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발전을 시작한다. 당시의 일본어교육 목적은 일본어 인재의 육성이었으며 북경대학, 북경외국어대학과 같은 주요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되었는데,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한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몇 번에 걸친 일본어붐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덕분에 학습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2. 일본어교육 현황

국제교류기금이 200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어학습자는 2003년 39만 명에서 2006년 68만 명으로 총 29만 명이 증가했으며, 전 세계 일

* 북경일본학연구센터 교수

본어학습자 가운데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어교사도 3년 전인 6000명에서 12000명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학습자가 가장 많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일본어학습자수는 중국 41만 명, 대만 12만 명, 한국 6만 명으로 중국의 학습인구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능력시험 참가자가 가장 많다. 2008년 일본어능력시험 수험자수는 전세계 약 4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중국 20만 명, 한국 7만 명, 대만 5만 명으로 역시 중국의 수험자수가 가장 많다.

일본어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증가가 빠르다. 중국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4년제 대학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합쳐 755개교이고 「독립학원(独立学院)(일본 단기대학에 해당)」은 315개교이다. 합계 1070개 대학 가운데 일본어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416개교에 달하며 전체 대학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부를 거쳐 석사과정에도 일본어와 일본문학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60여개 대학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들 일본어학습자는 장차 일본학연구자가 될 예비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어학습자의 수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에서는 각종 일본어교재가 출판되고 있다. 개중에는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의 판권을 사들여 번역 출판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요대학과 중견 출판사들이 교재 시리즈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국내의 교재부문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 고등교육출판사는 '대학일본어전공 공통기초교재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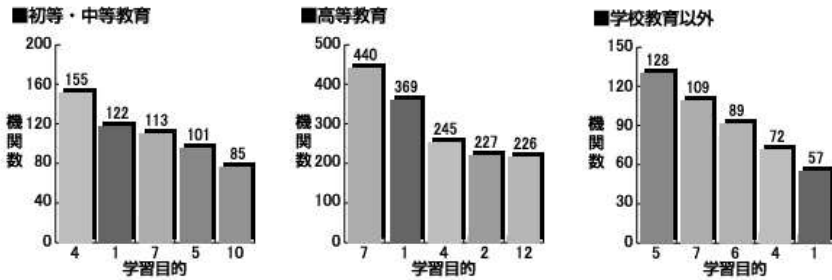
(大学日本語専攻共通基礎教材シリーズ)를 편찬하고 있는데, '総合日本語(종합일본어)', '聴解(청해)', '読解(듣기)', '作文(작문)', '日本事情(일본사정)' 등 학생교재와 교사용 교재를 합치면 그야말로 14권에 달하는 대형 교재시리즈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중국 초등학교에서 일본어교육을 실시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랴오닝성 다렌시(遼寧省大連市)의 실적을 토대로 초등학생용 교재가 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이제 중국에는 초등학교부터 석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어 관련 교재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일본어학습자의 학습목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필자 세대에는 열이면 열 아마도 「중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대답했을 것이다(물론 본심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학습자들은 학습동기가 참으로 다양하다.

일본어를 배우는 동기:

1.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2.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3. 일본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4. 대학이나 자격시험 등 수험준비를 위해
5. 일본에서 유학하기 위해
6.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일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7. 미래의 취업을 위해
8. 일본에 여행가기 위해
9. 일본과의 친선·교류를 위해(일본 단기방문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과)
10.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11. 모국어 혹은 부모의 모국어(계승어)인 일본어를 잊지 않기 위해
12.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흥미
13. 국제이해·이문화교류의 일환으로
14.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5. 그 외(1~15 중 5개 선택)



위의 항목 중 밑줄이 쳐진 것들은 상위 5위에 속하는 항목들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싶다는 학습목적이 모든 그룹의 상위 5위에 들어간다는 점이다(초등·중등교육:2위, 고등교육:2위, 학교교육 외:5위).

이처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어교사의 양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 중일공동사업으로 설립된 「재중국일본어연수센터(통칭 오히라학교) (在中国日本語研修センター(通称、大平学校))」가 중국의 일본어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979년 12월 당시의 일본 수상이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씨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정부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합의했다. 그 중 하나가 양국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이 중국의 일본어교육에 협력한다는 약속이었다. 양국 관계자(중국 교육부와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관련 전문가)가 협의한 끝에 다음해인 1980년 9월부터 북경어언학원(北京語言学院)(현재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学))에 「전국일본어교사양성반(全国日本語教師培訓班)」을 개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오히라학교(大平学校)」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시된 후 1983년에는 중국 국내에서 「일본어연수」만이 아니라, 일본어·일본연구 과정을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중국에서는 각 대학의 일본어학부나 학과에서 일본어교육이 행해지고는 있었지만 대학원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연구는 아직 그 예가 없었다. 중일 양국의 협의 끝에 조사단이 파견되었고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석사학위 과정의 교육방침·전공내용·커리큘럼 등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오히라학교에 개설되어 있던 일본어·일본문학에 일본사회·일본문화 코스를 포함시킨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985년 9월 5일 「오히라학교」 5기생이 수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경외국어학원(北京外国語学院) (현재 북경외국어대학(北京外国語大学))에 「북경일본어학연구센터(北京日本学硏究センター)」가 설립된다. 설치 경위와 개설 당시 입학자 가운데 오히라학교 수료생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오히라학교」가 「북경일본어학연구센터」의 전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일본어교육과 일본학연구

최근 중국의 일본어교육은 시대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다.

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본어교육

학생들의 요구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본어교육에서 인터액션이 가능한 일본어 교육, 즉 사회실천에 도움이 되는 일본어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어교육은 언어학습에만 편중되어 종합적 지식과 기초능력을 훈련하고 육성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서는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의 지식과 시야, 사고방식이 좁아지기 쉽다.

이제부터 일본어교육은 사회와 실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의 종합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일본어교육에서 출발해 일본연구분야의 인재육성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needs)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히라학교」와 북경일본학연구센터는 「일본어학」, 「일본문학」이 중심을 이루던 일본어교육에서 벗어나 「일본문화」, 「일본사회」, 「일본경제」 분야의 전공을 개설했으며 사회적 수요에 보다 잘 맞는 전문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오히라학교」 시대를 거쳐 북경일본학연구센터에 이르기까지 주로 힘쓰고 있는 사업은 「일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일본어교사·일본학연구자의 양성」이다. 센터가 개설된 이후 석사과정 수료자가 4백 명을 넘고 일본어교사연수를 받

은 대학강사도 4백 명이 넘는다. 「오히라학교」 시대의 6백 명을 포함하면 약 15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일본연구자로서의 첫발을 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 중인 40~50세 전후의 젊은 혹은 중견 일본어교사와 일본연구자를 조망하면 「오히라학교」 또는 북경일본학 연구센터 졸업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재양성을 위해 일본에서도 수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파견되었다. 북경일본어연구센터가 개설된 1985년 가을학기부터 2009년 가을학기까지 일본에서 파견된 교수가 700명 가까이 된다. 게다가 북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부터 남으로는 오키나와(沖縄)까지 일본 전역의 대학에서 파견되고 있으니, 다른 어떤 기관도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에는 필적하기 힘들 것이다. 이들 교수 중 대다수는 일본에서 직접 유학을 한다 해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가들 뿐이다. 북경일본학연구센터의 졸업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가지 않고 북경에 있으면서도 이들 교수들에게 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일본유학보다 더 행복한 일이라고 자주 말한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인 객원교수들을 살펴봐도 중일교류사에 이름을 남길만한 인물이나 북경대학, 인민대학과 같은 중국의 일류대학 교수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처럼 중일 양국의 교수들과 대가들이 모여 있으니 북경일본학연구센터는 당연히 일본학연구에 뜻을 품고 있는 전국의 젊은이들이 목표하는 최고의 학교이다. 현재 매년 정원 35명을 모집하는데 언제나 300명 정도의 응시자가 신청한다.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이라는 난관을 뚫고 중국 전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학생이 우수하면 가르치는 강사도 가르치는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본 센터에서 한번 가르치고 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강사들이 적지 않다.

중국 혁명시대에 쑨원(孫文)이 이끌던 군간부양성학교인 [황포군관학교(黃埔軍校)]가 있었다.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만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라학교]와 북경일본학연구센터는 그야말로 일본어교육·일본연구분야의 걸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른바 일본학연구 분야의 [황포군관학교(黃埔軍校)]라 보아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③ 인재육성모델의 변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일본어교육 인재육성모델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세대에는 주로 국가의 외교정책을 위한 인재육성이 중심이었으며, 일본어 교육을 받은 뒤에는 우선 외교 통역관이 된 후 외교관으로 성장하는게 보통이었다. 대표적 인물로는 탕자쥬(唐家璇)(외교부장), 리우떠여우(劉德有)(문화부 부부장), 왕샤우썬(王劼賢)(중일우호협회 부회장) 등을 들 수 있다.

제2세대에도 여전히 [일본어교육→외교 통역관→외교관] 루트가 계속되는데 우따웨이(武大偉), 왕이(王毅)(둘 다 주일대사를 거쳐 외교부 부부장이 되었다)와 같은 우수인재가 배출되었다. 이 시기의 새로운 인재육성모델로는 일본어교육을 받은 후 교육과 연구활동에 참가, 각 분야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일본학연구자로 성장해가는 케이스이다.

현재 활약 중인 연구자들을 몇몇 나열해 보면, 일본어분야에는 쉰이핑(徐一平), 쉰쥬웨이(朱京偉), 일본문학분야에는 쟁룽메이(張竜妹), 왕청(王成), 일본 문화분야에는 왕용(王勇), 궈련여우(郭連友), 일본사회분야에는 리궈칭(李國慶), 쑹인(龔穎), 일본정치경제분야에는 리웨이(李薇), 쟁찌펑(張季風) 등이 薇), 쟁한편, 모팡푸(莫邦富), 궈련위(沈國威), 쟁린썩(張麟聲), 왕민(王敏) 등은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오히라학교] 설립 이래 지속되어 온 노력이 서서히 큰 성과로써 결실을 맺고 있다.

④ 앞으로의 과제

이상과 같이 중국의 일본어교육은 일본학연구와 연관되어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갭(gap)의 문제이다.

하나는 교육현장에 존재하는 갭이다. 즉, 학생의 수요와 지도교사 간의 갭이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학생들이 졸업논문의 테마로 원하는 것은 언어·문학 35%, 문화 18%, 사회·경제 43%, 그 외 4%인데 반해 지도교사의 전문분야는

언어·문학 82%, 사회·경제 18%였다.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의 갭은 일본어출신 연구자와 전문영역출신 연구자 간의 갭이다. 어떤 대상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대략 2가지의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한 방법은 처음부터 그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접근을 시작, 점차 그 나라의 전문영역 중 한 가지, 예를 들어 문학,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다. 또 한 방법은 처음부터 전문분야, 예를 들어 문학,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을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그 전문분야 중에서도 일본 같은 특정 나라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 성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외국에 체류하며 그 나라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는 두 접근방법이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전자는 어학실력은 탁월하나 전문영역에 대한 기초훈련이 떨어져 뒤늦게 많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후자는 전문영역에 대한 기초훈련은 잘 다듬어져 있지만 어학실력이 따르지 못해 원어자료를 독파하거나 의사소통하는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어느 특정 대상국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 형태는 서로 다른 연구접근방법을 취하는 그룹들이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만약 양 그룹 간의 긴밀한 협력이 어려워지면 연구 발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일본학연구를 더욱더 레벨업시키고자 한다면 이 갭을 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4. 마치며

1979년 12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설했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국민의 마음과 마음 간에 맺어진 강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 국민간의 상호이해가 그 신뢰를 뒷받

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 양국은 서로 이웃한 채 2천년이라는 세월동안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단지 이에만 의존해 양 국민이 충분한 노력 없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방식, 살아가는 방법, 사물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는 명백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사회체제도 다르고 생활양식도 다릅니다. 그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은 자각의 노력이 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고 일시적인 분위기나 정서적 친근감,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 이해타산만을 가지고 일중관계를 구축하려 하다가는 마치 사상누각처럼 무의미하고 취약한 결과물로 끝나버리겠지요.

양 국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언어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일본어학습이 일본사회 및 문화 자체에 대한 폭넓은 관심의 고양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이해의 노력을 통해 일본과 중국이 서로의 관계를 보다 깊고 넓게 추진해감으로써 세계평화와 아시아정세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오늘날 양 국민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오히려 전 수상 연설은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이켜 보아도 상당히 의미가 깊다. 우리가 일본어교육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일본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런 일본문화 이해자 가운데 우수한 사람이 일본학연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학연구는 먼저 일본문화 이해자의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문화의 이해 없이는 일본학연구가 얕은 연구로 끝나 버릴 것이다.

일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비로소 정치, 경제, 문화가 삼위일체된 [삼륜차]형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에 대해 논할 때, 정치와 경제가 자동차의 양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자주 비유된다. 그러나 양륜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잘 살펴보면 2륜차에는 [인력거]나 [자전거] 밖에 없다. [인력거]는

빨리 달리지 못하므로 신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자전거]는 불안정해서 넘어지기 쉽다. 여기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를 이해해야만 [3륜차]형(안정되고 빨리 달리는) 교류가 가능해진다. [3륜차]형 교류는 지속가능한 교류이며 정치, 경제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방향타(키잡이)를 갖춘 교류가 되는 것이다.

日本語教育と日本学研究の関係

—中国の日本語教育と日本研究を例に—

徐一平*

1.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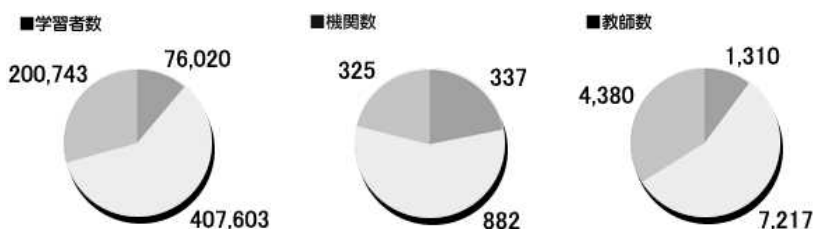
中国の日本語教育は、近代以後から盛んになっていたが、第二次世界大戦の戦争でかなり停滞していた。中華人民共和国成立後、新中国の様々な事業と同じように、20世紀50年代から発展し始めた。その時の日本語教育は、日本語の人材育成を目的に、北京大学、北京外国語大学など主な高等教育機関で実施されていたが、いわゆる文化大革命で一時中断した。

1972年の日中国交正常化された後、何度か日本語ブームが起こり、特に改革開放政策の推進とともに学習者が急激に増えてきている。

2. 日本語教育の現状

国際交流基金2006年の調査によれば、中国の日本語学習者数は、2003年の39万人から2006年現在の68万人に増加、世界第二位を占め、その間の増加は約29万人である。そして、日本語教師も三年前の6000人から12000人に増加している。

* 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 教授



しかし、その特徴としては次の三つが挙げられる。

1、高等教育機関の学習者数が一番多い。同統計によれば、高等教育機関で勉強する日本語学習者数は、中国大陸では41万人、台湾地域では12万人、韓国では6万人で、中国大陸での学習人口はダントツに高い。

2、日本語能力試験参加者が一番多い。2008年の日本語能力試験の受験者数は、全世界で約40万人だったが、その中で、中国大陸の受験者は20万人、韓国の受験者は7万人、台湾地域の受験者は5万人で、やはり中国大陸の受験者数が一番多い。

3、日本語専攻、修士、博士課程の増加が早い。中国教育部の統計によれば、中国大陸の四年制大学は国公立と民営の大学をあわせて755大学あり、更にいわゆる「独立学院」(日本の短大相当)315大学あり、合計1070大学ある中、日本語専攻がおかれている大学は、416大学もあり、全大学の約39%を占めていることになる。また、学部の上に、日本語日本文学を専攻とする修士課程が設けられている大学も、近年来増えつつ、既に60数大学に上っているという統計が出ている。これらの日本語学習者は後の日本学研究者の予備軍にな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日本語学習者のニーズに応えるために、中国国内で各種日本語の教材も出版されている。その中で、日本で出版された教材の版權を買い取り、翻訳出版するケースも増えている。更に、主な大学や大きな出版社も、シリーズ的な教材を企画し、例えば、国内の教材シェアのウェートを大きく占めている高等教育出版者は、¹大学日本語専攻共通基礎教材シリーズを編纂しており、その中には¹総合日本語、¹聴解、¹読解、¹作文、¹日本事情などの学生教材と教師用教材を合わせると、実に14冊になる大型な教材シリーズ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また、中国ではこれまで小学校の日本語教育はほとんど実施されていな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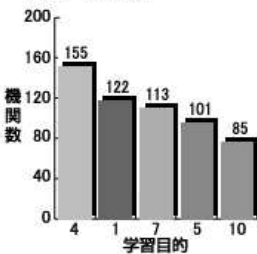
が、遼寧省大連市での実績をもとに小学生用の教材が制作され、今後の発展も期待できる。現在では、中国では、小学校から修士課程までの日本語関係の教材が出揃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ところで、これらの日本語学習者の学習目的は多様化しつつある。筆者の世代では、おそらく十人に聞いても、十人もそろって「中日友好のために」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のだと答え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ぞれの本心ではどう思っているのかはむしろ不明だったかもしれない)、今の学習者の学習動機は実に様々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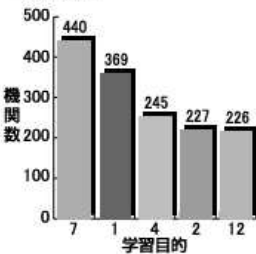
日本語を学ぶ動機：

1. 日本の文化に関する知識を得るため
2. 日本の政治・経済・社会に関する知識を得るため
3. 日本の科学技術に関する知識を得るため
4. 大学や資格試験の受験準備のため
5. 日本に留学するため
6. 今の仕事で日本語を必要とするため
7. 将来の就職のため
8. 日本に観光旅行するため
9. 日本との親善・交流を図るため(短期訪日や日本人受入)
10. 日本語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出来るようにするため
11. 母語、または親の母語(継承語)である日本語を忘れないため
12. 日本語という言葉そのものへの興味
13. 国際理解・異文化交流の一環として
14. 父母の期待に応えるため
15. その他(1.~15.から5つ選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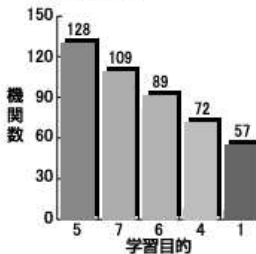
■初等・中等教育



■高等教育



■学校教育以外



設問の中で下線が引かれた部分はいずれも上位五つに入る項目であるが、その中で特に注目されたいのは、日本文化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という学習目的が、いずれのグループでも上位五つに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ろう(初等・中等教育：文化理解第二位；高等教育：文化理解第二位；学校教育以外：文化理解第五位)。

それから、これだけ熱心に学ぶ学習者を教えるために、日本語教師の養成も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る。特に、1980年代初頭に作られた中日共同事業としての「在中国日本語研修センター(通称、大平学校)」が、中国の日本語教育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ていると思う。

1979年12月、当時の日本首相大平正芳氏が、中国を訪問したとき、中国政府との合意事項のひとつとして、中日両国の相互理解促進のために中国の日本語教育に対して協力することを約束し、双方の関係者(中国の教育部と日本国際交流基金および関係の専門家)による協議の結果、その一環として、翌1980年9月から、北京語言学院(現在は北京語言大学)に開設された「全国日本語教師培訓班」がここで言う「大平学校」のことである。

この事業が実施されて半ばごろの1983年に、中国国内から「日本語研修」に加えて、日本語・日本研究の「大学院修士課程」を新設してはどうかという声が上がった。当時の中国においては、日本語教育は各大学の日本語学部や学科で行われていたものの、大学院レベルの日本研究はまだ例がないために、中日双方で協議した上で、調査団が派遣され、大学院修士課程の教育方針・専攻内容・カリキュラムなどに関して、中日双方の関係専門家が検討協議を行った。その結果、大平学校の経験に連なる日本言語・日本文学のほかに、日本社会・日本文化のコースも含む大学院課程を設置すると提案された。

1985年9月5日、「大平学校」の五期生が修了してまもなく、北京外国語学院(現在は北京外国語大学)に、「北京日本学研究中心」が設立されたのである。この設置の経緯、また開設当時の入学者には大平学校の修了生が少なくないということからしても、「北京日本学研究中心」はまさに「大平学校」の発展の結果と言えよう。

3. 日本語教育と日本学研究

今日の日本語教育は、時代の変化に伴って変わりつつある。

① 社会に役立つ日本語教育

学生の要望で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の日本語教育から、更にインターアクションとしての日本語教育、または社会実践としての日本語教育が要求されている。

これまでの日本語教育は、言葉の学習に偏り、総合的な知識と基礎的な能力の訓練と育成に欠けていた。そのように教育された学生は、ややもすると、知識が狭く、視野と考え方が広くないのである。

これからの日本語教育は、社会と実際の状況と密接に結びつかなければならない。学生の総合的な能力を育成するのに、力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② 日本語教育から日本研究への人材育成

そのようなニーズに応えるために、「大平学校」と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では、それまでの「日本語学」「日本文学」が中心だった日本語教育の上に、更に「日本文化」「日本社会」「日本経済」の専攻を立ち上げ、より今日の社会的ニーズに応えられる専門的な日本研究人材を養成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

「大平学校」の時代から、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の時代まで、この事業においては、主に「日本に関する専門知識を有する日本語教師・日本学研究者」を養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きたが、センター開設されて以来、修士課程修了者が四百数十人、日本語教師の研修を受けた大学教師が四百数十人で、「大平学校」時代の六百人を含めると、約1500人近くの学生がここから巣立っていったのである。現在、中国の各大学や研究機関で活躍している40歳から50歳前後の若手や中堅の日本語教師や日本研究者を見渡せば、「大平学校」か、あるいは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の卒業生がかなり多くいる。

このような人材を養成するために、日本から多くの著名な学者が派遣された。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開設の1985年の秋学期から、2009年の秋学期現在まで、派遣された教授の人数は700人近くあり、しかも、北は北海道から南は沖縄

まで、日本全国の各大学から人選されているので、その人的ネットワークは、ほかのどの機関も匹敵できないものになっている。その教授陣のラインナップのすごさも、すべての学生にうらやましがられるものであった。その中の多くの先生は、おそらく日本に留学してもなかなか直接会えないような大家ばかりだが、しかし、センターの学生は北京にいながらにしてこれらの先生から直接指導を受けているので、日本に留学するよりも幸せだと卒業した先輩たちはよく言っていた。そればかりでなく、中国人の客員教授にも、中日交流史に名が残る人物や、北京大学、人民大学など中国一流大学の教授の名前が連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だけ中日双方の教授や大家が集まっている北京日本学研究中心センターだから、当然、全国の日本学研究中心を志す若者たちの目指す最高学府となる。現在の毎年定員35名の募集に対して、いつも300名前後の応募者が申し込まれ、一次ペーパー試験と二次面接とペーパー試験という難関を突破して、中国全土から優秀な学生が集まってきているのである。学生が優秀だと、教える先生も教え甲斐を感じて、一度派遣されると、二度も三度もやってくる先生も少なくない。

中国の革命時代に、孫文の率いた軍幹部養成学校である「黄埔軍校」があり、ここからは後の時代に名を残す人物が輩出していたが、人材育成の意味では、「大平学校」と北京日本学研究中心センターが、まさに中国の日本語教育・日本研究のために中堅となる人材を養成する日本学研究中心の「黄埔軍校」だとみなし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

大まかな統計によれば、大学で活躍しているこれらの卒業生は、その中で既に教授クラスになっているものが、約100名くらいになっている。

③ 人材育成モデルの変化

このようにして見ると、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人材育成のモデルも、徐々に変化しているのが分かる。

第一世代では、凡そ国の外交政策のために人材を育成しているのであり、それらの人たちは、日本語教育を受けてから、まず外交ルートの通訳となり、更に外交家へと成長していくのである。この人たちの中に、代表的な人物としては、唐家旋(外交部長)、劉徳有(文化部副部長)、王効賢(中日友好協会副会長)など

が挙げられるのである。

第二世代からは、もちろんこの日本語教育→外交ルート通訳→外交家への道は続けられているが、その中で、武大偉、王毅(何れも日本駐在大使を経て、外交部副部長クラス)などのような優秀な人材も輩出しているのである。更に、この時期から新しい人材育成のモデルとしては、日本語教育を受けて、更に自ら教育、研究活動に参加し、そして、各方面から日本を研究する日本学研究者に成長していくのである。

この中で、現在活躍しているものを挙げれば、例えば、日本語研究方面では、徐一平、朱京偉など、日本文学研究方面では、張竜妹、王成など、日本文化研究方面では、王勇、郭連友など、日本社会研究方面では、李国慶、龔穎など、日本政治経済研究方面では、李薇、張季風などの人物が挙げられる。更にその中で、日本社会で活躍しているものもあり、例えば、莫邦富、沈国威、張麟声、王敏などである。

こうして見れば、「太平学校」以来の努力は徐々に大きな成果として実りつつあるのである。

④ 今後の課題

上述のように、中国の日本語教育は、日本学研究と関連しながら、大きく発展してきている。しかし、やはりまださまざまな問題を抱えている。その中の大きな問題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二つのギャップがあると考えられる。

一つは、教育現場でのギャップである。つまり、学生のニーズと実際に指導できる教師との間にはギャップがある。ある統計によれば、学生の卒業論文テーマの希望としては、言語文学35%、文化18%、社会・経済43%、その他4%であるのに対して、指導教官の専門を見れば、言語文学82%、社会経済18%になり、つまりこのギャップを埋めていくためには、もっともっと日本学研究の専門人材を育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もう一つのギャップは、日本語畑出身の研究者といわゆる専門領域畑出身の研究者のギャップである。一つの対象国を専門として研究するアプローチの仕方は、凡そ二つの方向性が考えられる。一つは、最初からその国に対して興味をも

ち、その国のことばを勉強することによって接近し、だんだんとその国のある専門的な領域、例えば文学、文化、社会、経済、政治などについて研究するようになる。もう一つは、最初からいわゆるディシュプリン(専門)、例えば文学、文化、社会、経済、政治などを勉強し、最終的にその専門の中で特に日本をその研究対象として選んで研究するようになる。結果から見れば、このいずれの場合も成功した研究ができると考えられる。世界的に見た場合、特に外国にいて他の対象国を研究する場合は、むしろ前者のほうがより自然かもしれない。そして、この両者には実はそれぞれの長所と短所がある(前者は語学的に成熟しているが、専門領域での訓練が後発なので、その面での強化が必要である。後者のほうは専門領域での基礎訓練ができていますが、語学の勉強が遅れているために、原語資料の読破と意思疎通が弱い面がある)。一つの国におけるある特定の対象国の研究を発展させるために、理想的な形としては、この二つのグループが協力しながら研究したほうが最もよい成果が上がると思われる。もしこの二つのグループが、二枚の皮のように離れた状態になっていけば、その発展はとても難しいと考えられる。今後の中国における日本学研究を更にレベルアップしようとするならば、このギャップをも埋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4. 終わりに

1979年12月大平正芳首相が訪中のとき、次のように講演された：

「国と国との関係において最も大切なのは、国民の心と心の中に結ばれた強固な信頼であります。この信頼を裏打ちするものは、何よりも相互の国民の間の理解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ながら、相手を知る努力は、決して容易な業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日中両国は一衣帯水にして二千年の歴史的、文化的つながりがありますが、このことのみをもって、両国民が十分な努力なくして理解し合えると安易に考えることはきわめて危険なこと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

ものの考え方、人間の生き方、物事に対する対処の仕方に日本人と中国人の間

には明らかに大きな違いがある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

我々は、このことをしっかり認識し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体制も違い流儀も異なる日中両国の間においては、尚更このような自覚的努力が厳しく求められるのであります。このことを忘れ、一時的なムードや情緒的な親近感、更には、経済的な利害、打算のみの上に日中関係の諸局面を築き上げようとするならば、それは所詮砂上の楼閣に似たはかなく、脆弱なものに終わるのであります。

国民の間の相互理解の増進を図る一つの有力な手段が、言語であることは、いまさら申すまでもありません。

中国における日本語の学習が中国の人々の日本の社会及び文化自体に対する幅広い関心の高まりにつながることを強く期待するものであります。

以上のような相互理解の努力を通じて、世界の平和とアジアの安定の創造に寄与する日中両国の関係をより深くより広く推し進めていくことこそ、今日、両国民に課せられた最も大きな課題であると信ずるものであります。」

ここで述べたことは、30年たった今も、振り返ってみたときは非常に意義深いものだと思う。われわれの日本語教育の目的は究極的のところ日本文化のよき理解者を育てることにあるに違いない。日本学研究者は、これらのよき理解者の中での優秀な人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意味で、日本学研究はまず日本文化理解者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文化理解なしの日本学研究は浅いものにしかできない。

日本(文化)理解のできる人材を養成して、初めて政治、経済、文化三位一体の「三輪車」型の交流ができると思う。

国と国との交流を考えると、よく政治と経済は車の両輪だと言われるが、しかし、この両輪だけに頼るのは足りないと思われる。考えてみれば、二輪型の車は、「人力車」型か「自転車」型でしか考えられない。「人力車」は早く走れないので、その関係は迅速に発展できない。「自転車」は不安定で倒れやすい。そこに欠けているのは文化である。文化理解があって初めて「三輪車」型(安定して早く走る)の交流ができる。「三輪車」型の交流は、持続可能な交流であり、政治、経済の理解を深めていく方向付け(舵取り)のある交流になるのである。